금수강산

12

주체105(2016)
루계 제328호 월간

그리움의 흰눈송이

2. 찬눈길 헤치며 비바람 막으며 가꾸신
   만복의 씨앗들 열매로 주렁진 그 사연 아뢰느냐
   아 뵙고파 **김정일**동지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고생많던 그 한생
   가슴에 사무치네

3.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간절한 그리움
   강산에 펼치며 하늘땅 가득히 내리는 눈송이야
   아 못 잊어 **김정일**동지
   이 나라 이 땅엔 어디서나 장군님 그리움에
   잠 못 듭니다

아 눈송이 내 마음 흰눈아
너처럼 정갈한 이내 맘 티없는 충정으로
그리움 안고 살리

차 례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인민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온 조국땅이 피눈물에 잠겼던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는 이 시각 조국의 천만군민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끝없는 경의를 드리고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다고,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령도의 첫 시작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

지금도 그이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

제품 하나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리도 기뻐하시고 살림집시공이나 공장관리운영을 알아보실 때에도 인민들의 생활상조건과 로동조건부터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제일 좋은것으로, 가장 훌륭한것으로 보장되도록 하시고 그를 위해서는 타산을 모르신

그이이시다.

주체68(1979)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협의회를 소집했을 때였다. 당시 일군들은 새로 효모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자금사정을 타산하면서 두고보다가 시작하자고 제기하였다.

한동안 일군들의 의견을 심중히 들어주시던 장군님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봐야 하지만 수판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언제인가는 얼음장을 타고 표류당하던 한 어로공처녀를 위해 비행기를 띄우도록 해주시고 구원되였다는 보고만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한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시였으며 세명의 자매도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깊은 산골의 한두세대를 위해 텔레비존중계탑도 세워주도록 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지난 1990년대 천만뜻밖의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를 기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미친듯이 달려들때 조국과 인민을 지켜 단호히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였다. 사실 지금은 누구나 선군정치라는 말을 례사롭게 외우지만 시련의 그 나날 인민들이 식량난, 전기난으로 고생을 하는 가슴아픈 정경을 보시면서도 선군의 길을 택해야만 했던 장군님의 심중은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수 없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것을 막고 존엄과 긍지, 평화와 행복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선군의 길을 택하시였던것이다.

그 길에는 세찬 눈보라와 강추위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며 아찔한 낭떠러지로 야전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던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있었다.

당시 오성산을 다녀오신 장군님께 일군들은 이렇게 절절히 아뢰였다.

어쩌면 그런 위험천만한 곳까지 가신단 말입니까. 장군님! 다시는 제발…

장군님께서 그런 험한 곳까지 가시게 한 저희들을 인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

오열을 터뜨리는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도 격정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나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나는 인민들을 잘살게 해줄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해주기 위하여 나는 험하기 이를데 없는 오성산에도 올랐고 선군정치를 하였습니다.

오로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자신의 최대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기에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이 드리는 소박한 지성마저 마다하시며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나도 동무들과 같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아직은 우리 인민들이 남들처럼 잘살지도 못하는데 인민을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된다고 엄하게 교시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재촉하시였던것이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안으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광명성-2》호가 우주에 오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자위의 핵뢰성이 지심을 흔들고 혁명무력은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척같이 자라나 우리 조국은 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하여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던 적대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였다.

선군의 핵보검으로 온 겨레가 영원히 전쟁이 없는 평화의 푸른 하늘을 이고 마음놓고 삶을 누리게 해준것,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중의 가장 큰 사랑이며 조선민족이 받아안은 가장 귀중한 만년재보이다.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장군님께서는 만난시련을 이겨낸 조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서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길은 말그대로 초인간적인 활동으로 이어진 시간의 련속이였다.

주체98(2009)년 한해만 돌이켜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배이상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새해 정초에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때로부터 불과 10일

일화

없어진 계단

주체97(2008)년 6월 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대동문영화관을 찾으시였다.

대동문영화관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건설을 아주 잘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설계가들과 시공자들은 희색이 만면하였다.

그런데 중앙홀과 관람홀사이의 련결홈계단에 이르신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왜 그러실가?)

일군들이 의아해하자 장군님께서는 계단을 가리키시며 중앙홀에서 관람홀쪽으로 가는 련결홈에 계단을 형성한것은 잘못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얼른 리해가 되지 않았다.

관람홀이 중앙홀보다 높으니 그 련결부위에 계단을 만든것은 응당하다고만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기웃거리는 일군들에게 그 리유를 설명해주시였다.

《영화관에는 늙은이들이나 아이들도 적지 않게 오겠는데 그들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수도 있고 상할수도 있습니다. 영화관은 늙은이들이나 아이들이 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되여야 합니다.》

늙은이들과 아이들!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념두에 두신것이였다.

설계가, 시공자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느꼈다.

설계의 시작부터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려주자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모두의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기울이였건만 계단을 리용할 늙은이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순간에 그것을 포착하신것이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아니시고는 찾아낼수 없는 결함이였다.

그후 계단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늙은이들과 아이들도 불편없이 드나들수 있는 약간 경사진 통로, 안전한 통로가 생겨났다.

*　*　*

안팎에 원산과 대안으로,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과 인민군부대, 룡악산유원지로 이어졌고 련이어 동봉과 흥남지구로, 흥남에서 천수백리 떨어진 락원으로, 그곳에서 다시 원산으로, 동해 수천리를 꿰질러 김철과 라남, 무산으로 이어졌다.

넌대와 넌대를 이어오는 그렇듯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조국땅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 간석지건설이 추진되고 농촌경리에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의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되였다. 그리고 CNC공작기계생산의 세계적인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축산기지, 과일생산기지, 양어기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것을 보실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는 보람을 느끼시며 더 많은 일을 하실 결심을 다지군 하시였다.

언제인가 새로 개건된 어느 한 닭공장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공급받은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그길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이이시였으며 장강군의 어느 한 새로 지은 농장마을의 살림집들에 가시여서는 기뻐하는 농장원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장군님이시였다.

바로 그런 날과 달은 수없이 많고많다.

자강도에 가면 구봉령에 새겨진 전설이 있고 대홍단에 가면 홍단이, 대홍이의 이름과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가 있으며 삼수에 가면 발전소건설에 앞서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부터 지어주게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그런 가슴뜨거운 사연은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계속되였다. 사실 그이의 생애의 마지막달에 의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위대한 장군님께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지 말것을 간절히 아뢰였다. 하지만 밤이나 낮이나 인민들생각으로 온넋을 불태우신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에 이어 생애의 마지막날까지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였기에 천만군민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며 그이의 유훈을 지켜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그리워 찾는 곳

이해의 마지막달 12월이다.

온 한해 위대한 수령님들을 잊고 산적이 없는 조국인민들이기에 행복이 꽃펴날수록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 한달음에 달려가는 곳이 있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

그가운데서도 조국인민들이 먼저 찾는 곳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다.

그들은 금빛찬란한 대원수별이 빛나는 웅장한 돌대문을 지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서 먼저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있다.

그리고는 록지와 휴식구를 갖추고 특색있게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거닐며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심정으로 사진도 찍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듯 드넓은 광장에서 그리움에 넘쳐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자욱이 숭엄히 어려와 눈굽이 젖어듦을 금할수 없다.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사는 전쟁로병 김경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뵙고싶을 때면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찾군 합니다. 광장공원에 오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음성이 들리는듯 합니다. 그래서 손자애를 데리고 다른 곳보다 먼저 이곳을 찾군 합니다.》

광장공원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던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전혜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광장공원을 거닐수록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옴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이의 손길아래 재능있는 성악가로 성장한 저여서 그런지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그이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습니다.》

누군가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모든것이 망각속에 묻힌다고 말했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그리움이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끝없이 찾고찾는 조국인민들

외국인들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고있다.

수 기

자애로운 그 영상 그립습니다

우리 겨레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목메여 부르던 12월이 다섯번째로 조국땅에 다가오고있습니다.

12월을 생각할 때면 저의 뇌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우리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던 5년전의 1월이 돌이켜집니다.

대한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주체100(2011)년 1월 21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가 올리는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 서시여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이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들에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제품진렬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강냉이쌀강정과 빵, 과자, 국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있다고,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앞으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진렬장에 전시해놓은 메밀국수와 강냉이국수봉지를 보신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서 메밀국수와 강냉이국수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고, 우리 인민들은 메밀국수도 좋아하고 강냉이국수도 좋아한다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곱씹어 외우시며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포장한 말린 산나물과 산나물장절임, 도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술들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과자작업반으로 향하시였습니다. 콘베아를 타고 나오는 과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과자를 드시고 맛을 보시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에게 공급되게 될 과자이기에 평범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품 하나를 놓고도 그것을 먹게 될 인민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저희들은 머리를 숙이고야말았습니다.

국수생산반에 가시여서는 진공포장국수와 포장한 말린 국수, 포장하지 않은 국수를 인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에서 팔아주기도 하고 교환도 해주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고 사탕작업반에 이르시여서는 알사탕봉지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니 괜찮다고 하시며 딸기향알사탕은 색갈이 너무 진한것 같다고, 이 사탕은 색갈을 지금보다 절반정도 연하게 하여도 일없다고 일깨워도 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해주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설사 그것이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량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최상의것으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식료품으로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것, 이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였습니다.

저는 몸소 과자의 맛까지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질이 보장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그이의 인민사랑을 높이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지배인 서인옥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고산땅

풍고산, 진고산으로 소문난 고산땅이 처음보는 과일대풍을 안아와 사람들을 놀래웠던것도 이제는 어제일이다.

하지만 과일보관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빨간 사과들과 거기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사과향기는 가지마다에 탐스러운 열매가 땅이 꺼지도록 달려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던 지난 가을계절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마치도 사과알들에 빨간 물감을 들인것만 같고 철령아래가 온통 붉게 보이던 사과바다는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고 볼수록 기쁨을 더해주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것 같은 그런 전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그런 전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고산지구를 대청춘과원으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며 현대적인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을 보내주시여 천지개벽의 첫 페지를 써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고산땅을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그 애국헌신의 로고가 과원마다에 오늘은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어 《선군13경》을 펼쳐놓았다고 그이의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곳 사람들은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과일생산을 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더우기 올해에는 비바람이 세찼고 극심한 이상고온이 계속되여 수정률이 떨어지고 병충해가 류례없이 심하였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든 영농작업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알심있게 진행하여 정보당 50여t의 사과를 수확함으로써 생산을 체계적으로,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수천t능력의 현대적인 과일보관고와 돼지목장들, 방울식관수양수장들과 과수원도로 등을 건설하여놓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고산과수종합농장 지배인 최종수는 말하였다.

《지난 9월 우리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들은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보당 수확고경쟁, 사과맛경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며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찬가로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겠다.》

본사기자 유선화

숭고한 그 념원 꽃펴나는 내 조국

하늘처럼 믿고 살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떨며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 흘렀다.

한 민족의 력사에서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5년간 조국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안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왔다.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

사회주의강국건설 -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의 념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남기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은 장군님의 그 유훈을 관철하고 빛내이는 길이 곧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길,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워나가는 길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하여 조국땅 그 어느 일터에서나 그이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일군들은 누구나 장군님께서 자기 단위에 주신 과업들가운데서 관철한것은 무엇이며 미진된것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니 어디서나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제일먼저 찾으시였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청년건설자들은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까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갔으며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을 보장하였고 덧집을 짓고 언제타입을 내밀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 등 조선청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영웅적위훈을 세워 1호, 2호, 3호발전소를 청춘대기념비로 일떠세웠다.

웅장하게 일떠선 청천강계단식발전소에서도, 훌륭하게 개건된 평양메기공장과 평양곡산공장, 원산구두공장, 천리마건재종합공장에서도,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철강재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유훈관철전의 거세찬 폭풍이 몰아쳤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거름과 대용비료생산을 다그쳐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포전들을 옥토로 전변시켜나가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길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의지를 안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해나갔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였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마련되였다.

더 밝고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끝없이 비약하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의 념원을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그해의 마지막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국에서는 그야말로 창조와 변혁의 날과 달이 흘러갔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위들과 일군들을 찾아가시여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또 하나의 큰일을 해놓았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고 어느 단위, 어느 일터를 찾으시여도 유훈관철정형을 먼저 알아보시고 나타난 편향도 지적해주시며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건별로 하나하나 따져가시며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으로 하여 조국땅에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도처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은을 내고있으며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져가는 조국의 모습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현실로 꽃펴나는 조국의 모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전호에서 계속)

그날 밤 우리는 밀정들이 나타날수 있는 서쪽관문에 2중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벌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개구리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옆에 붉은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기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옆에 비스듬히 서있던 그 잊지 못할 기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론의를 거듭했기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성원들이 해야 할 과업으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동지적단합을 확고히 이룩할데 대한 문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질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해서와 당조직건설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을뿐이였다.

우리는 당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ㅌ.ㄷ》의 강령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있었고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과 전략적방침들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었다.

그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였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었다.

건설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에 넘치는 열변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다.

김혁의 시랑송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례총을 쏘고싶소!》

나는 일본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멍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왔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였다.

그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왔다.

국내에 당조직들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당조직을 무었다.

우리의 청소한 당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오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당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유구한 선린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류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있는 시대적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종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주었으며 중국당과 중국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당과 중국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둡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 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가슴아파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당과 련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인민의 방조를 받을수 없었으며 반제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나갈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당과의 련계를 중시한것은 만주성위산하의 당조직들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동만특위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있었고 동만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다수가 조선사람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당원비률에 있어서도 90% 이상이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동만지역 당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지방에 조선인당원들이 많은것은 간도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였기때문이다.

내가 중국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숙에서 《ㅌ.ㄷ》를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공산당과의 련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ㅌ.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였다.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은 우리와 중국공산당과의 련계문제를 성숙된 요구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조직과 련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후에는 화룡지방에서 교편을 잡고있으면서 중국공산당조직에 관계하고있었다. 그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 등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녕안현당의 책임적지위에 있으면서 동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련계를 가졌으며 동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동만특위에 파견되여왔을 때는 그와 깊은 련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당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였다. 동장영이 희생된 다음에는 위증민과 련계를 가지였다. 그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이였던 반동무와도 련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였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공산당과의 깊은 련계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나간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1국1당제에 관한 국제당로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종일관 조국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립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적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1963년에 최용건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은래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깊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때 그는 축하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이 주도적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선은 끊을래야 끊을수 없고 영원한것이다, 항일련군은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련합된 혁명무력이였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증민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때문에 중국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군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카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였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후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로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였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끝)

존엄높은 핵강국을 일떠세우시여

미국정보회사 아시아태평양전략분석책임자는 회사의 주간잡지 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최근년간 조선의 핵능력강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다. 조선의 견지에서 볼 때 핵능력강화는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 미국은 우선 조선의 핵보유인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글은 력사적으로 미국집권자들이 강행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국의 핵보유로 하여 파탄을 면치 못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조미사이의 핵대결에서 조국이 거둔 이 승리는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조국에 핵위협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년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가해지는 조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1990년대에 더욱 우심해졌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판가름되는 그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군력강화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 간고한 나날들을 헤쳐오시며 그이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의 하나가 바로 핵억제력이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신 장군님께서는 핵무력강화에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굳건히 다져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그이의 결심이며 의지였던것이다.

주체95(2006)년 10월, 세계는 조선에서의 기적을 목격하였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핵폭음이 울린것이였다. 이어 주체98(2009)년에는 제2차 지하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온 세계가 끓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조선을 많은 대국들이 소홀히 할수 없는 동북아시아안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게 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로역경을 헤치며 걸으신 핵무력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중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의 핵억제력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도록 령도하시였다.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병진로선을 다시금 해설해주시였고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와 탄도탄제작을 위해 10여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가시여 의논도 해주신 그이이시다.

그이의 지도밑에 올해에 들어와 련속 다계단으로 취해진 주체의 핵무력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지구를 뒤흔들었다.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소형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의 실현, 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 련이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들, 핵탄두폭발시험 등에서의 성공…

사회주의조선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중되는 핵공갈, 핵위협책동에 대처한 조국의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눈부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민족사적사변들이였다.

조국에서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민족사적쾌승을 두고 해내외의 온 겨레는 한결같이 《**김정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고 위대한 병진로선의 승리로서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하기에 오늘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을 맞으며 조국을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박충성

유자녀들을 위하여 기울이신 사랑과 정

해방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한목숨 바친 렬사들의 자녀들에게 뜨거운 육친의 사랑과 정을 다 기울이시였다.

녀사의 가슴속에는 항일의 피어린 혈전장에서부터 고이 간직하고계시던 밤색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에는 렬사들의 이름과 함께 유자녀들의 이름이며 나이, 고향 등이 적혀있었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우도록 해주신 만경대혁명학원의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산에서 싸울 때 동지들의 주소를 수첩에 적어놓은것이 있다고, 그것을 참고하면 그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으며 유자녀들을 찾아떠나는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그들을 한두번만 찾아보아서는 안된다고, 시간이 걸려도 기어이 찾아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자신의 일가친척들이 아니라 렬사들의 유자녀들을 먼저 찾으시는데 온갖 심혈을 바치시는 녀사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의 동북땅 각지에서 수많은 유자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주체36(1947)년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 림시교사를 찾으신 김정숙녀사께서는 마당에서 즐겁게 뛰여놀다가 한달음에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드리는 원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앓는 아이는 없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앓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다고 힘차게 말씀드리는 원아들의 얼굴은 전에없이 명랑했고 웃음기가 돌았지만 녀사께서는 친혈육의 품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심심하면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시며 너희들의 아버지는 장군님이시고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의 집에 오는것인데 어려울것이 무엇이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원아들은 《어머니!》하고 목메여 부르며 녀사의 품에 와락 안겼다.

녀사께서는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원아들에게 지금은 불편한것이 많겠지만 장군님께서 만경대에 세워주시는 현대적인 새 교사가 완공되면 그곳에 옮겨가서 아무런 불편없이 공부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던 원아들은 녀사께 《만경대에 가면 매일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고 인사를 올릴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원아들의 간절한 모습에서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소원을 헤아리신 녀사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건설장을 찾으시여 본관의 중앙현관앞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자리까지 잡아주시여 언제나 장군님을 뵙고싶어하는 원아들의 소원을 풀어주시였다.

오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입고 다니는 제복에도 유자녀들에게 바치신 김정숙녀사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녀사께서는 밤깊도록 학원제복도안들을 한장한장 그리시였으며 다음날 수령님께서 선정해주신 도안에 따라 제복견본을 직접 만들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원아들의 제복을 생산하고있는 국영평양피복공장(당시)을 찾으시여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제복은 몸을 다 재여 몸에 꼭 맞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 애들이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시며 몸소 재봉공이 되시여 바느질을 설치게 한 곳이 있으면 다시 박아주시고 삐뚤어진 단추구멍이 있으면 고쳐 틀어주기도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앓는 원아들이 있으면 맛있는 과일과 귀중한 보약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입맛을 돋구어주어야 한다시며 미나리김치와 록두지짐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시였다.

하기에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은 모두가 김정숙녀사를 《우리 어머니》라고 정담아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진정 해방전 길가의 조약돌마냥 여기저기 나딩굴며 추위와 굶주림속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 울던 그들에게 있어서 김정숙녀사의 사랑은 친부모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뜨겁고도 다심한 사랑이였다.

본사기자 연옥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한해

뜻깊은 한해 2016년을 바래우는 지금 조국의 천만군민은 온 한해를 지난 시기의 10년 맞잡이로 달려온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아마도 추억의 첫 갈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던 그 순간이 새겨져있을것이다.

새해의 첫 아침 조국의 천만군민은 신년사에 제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또다시 세차게 펼쳐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속에 천만군민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드높은 신심과 혁명적기상 그리고 불굴의 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비상히 앙양된 인민의 정신적힘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후하여 진행된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눈부신 성과를 안아왔다.

어디서나 만리마의 속도가 창조되였고 만리마기수들이 배출되였다.

인민들의 높은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최대로 증폭발되여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여갔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150일만에 7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살림집골조공사가 끝나고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조국땅 곳곳마다에서 현대적인 야영소와 중등학원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될 천리마건재종합공장, 평양자라공장 등이 현대화되였다. 땅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수개발의 완전성공과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성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전력과 석탄, 주체철, 주체비료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갔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더 많이 생산되여나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전에없이 향상되였다.

뿐만아니라 나라가 흥할 징조를 떠올리며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수의 선경이 펼쳐졌고 천지개벽된 세포등판이 자기의 모습을 보란듯이 자랑하였다.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력기, 기계체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 출전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평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높이 발휘하여 금메달들을 비롯한 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창조함으로써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혁명가의 신념은 미래

개건된 중앙동물원과 새로 일떠선 자연박물관

를 본다는 철리를 새겨주었다.

실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최전성기가 펼쳐진 자랑찬 한해였다.

한해동안에 이룩한 승리가 그토록 값비싸고 귀중한것은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리는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제재와 전쟁위협, 혹심한 자연피해속에서도 굴함없이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온데 있다.

짚아볼수록 가슴이 후련하다.

1월에는 첫 수소탄보유를 선포하였고 6월에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이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으며 8월에는 선군절을 맞으며 전략잠수함 탄도탄 《북극성》이 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하였고 련이어 9월에는 핵탄두폭발시험이 대성공하였다.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앞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겨냥한 제재소동과 사회주의조선의 《붕괴》라는 망설로 지구상을 어지럽힐 때 조국에서는 자연의 무서운 대재앙이 북부지구를 휩쓸었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가장 참혹하게 들이닥친 함북도 북부지구에서의 대규모큰물은 북부지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아픔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큰물피해를 받은 함북도 북부지구에로 정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섰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동족이 당한 대재난을 놓고 남조선괴뢰패당이 내뱉는 극악한 악담질에 몰탈벼락을 들씌우며 군민대단결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재난의 흔적우에 다시한번 전화위복의 무릉도원을 일떠세웠다.

북부지구의 인민들이 한날한시에 따뜻한 새 집에 보금자리를 잡던 그날, 그들이 심장으로 웨치는 사회주의만세, 로동당만세소리는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주체105(2016)년,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조국은 또다시 이 한해동안 사회주의강국의 눈부신 래일을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올해에도 조국은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승리를 이룩해올수 있었다.

언제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조국의 전진속도와 인민의 힘에는 한계가 없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조선중앙통신

청년강국의 주인공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이 오늘은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은 청년들의 위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국의 청년들은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마다에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안달아할 때 탄광으로, 광산으로, 농촌으로 달려나가는것이 바로 조국의 청년들이다.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라는 구호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청년들이 흘린 후더운 땀방울에 의해 조국땅에 세워진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참으로 많다.

그중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도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까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선군시대 청춘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조국의 청년들은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솟선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그들은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고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서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레루를 떠받들었다. 하여 10년동안에 한 일보다 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낌으로써 1호발전소언제를 완공하여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도 자랑찬 위훈을 새겼다.

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대자연개조전투였던 3호발전소건설,

청년들은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건설공법에 종지부를 찍고 불리한 정황속에서 언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여 불판우에 올려놓고 혼합물을 이겼고 모든것이 돌덩이처럼 얼어붙는 북방의 겨울철에 보온덧집속에서 언제속벽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의 붉은 피로 량심의 점수를 매겨갔다.

그 나날 청년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콩크리트속벽식사석언제설계를 비롯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현장조건과 실리에 맞는 새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수십건이나 창안도입하였으며 24시간동안에 언제를 1만 2 000여m^3나 쌓아올리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지난 4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체현자들이 있어 조국이 구상하고 설계하는 곳마다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굴지의 탄전들중의 하나인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게 될 어렵고도 방대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 참가한 평안남도청년돌격대원들도 8년세월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착암기의 동음을 멈추지 않고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여러 건설장들과 탄광, 광산, 농촌 등 그 어디를 가보아도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벌려나가며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미더운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에 의해 온 나라는 청년판으로 흥성이고 조국은 나날이 젊어지는것이다.

하기에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청년들의 혁명열과 투쟁열, 애국열은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자기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 영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을 떨치는 조선청년들은 전세계 진보적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조선중앙통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청년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창조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체의 힘과 기술, 설비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꾸린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색갈의 수성 및 유성칠감들이 쏟아져나오고있는데 생산된 칠감들의 수요가 대단하다.

우리와 만난 기업소의 일군 리성일은 칠감에 대한 수요를 다 보장해주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서 이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자체로 꾸리기까지는 참으로 힘들었지만 제힘을 믿고 하기를 잘했다고, 우선 창조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 좋고 생산된 국산제품이 세계적수준이여서 좋으며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니 더더욱 좋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장 한가운데 서있는 아크릴산 및 에스테르합성탑으로 향했다. 합성탑은 보기만 해도 멋있었으며 무인화가 되여있었다.

거기에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보내주는 아크릴계칠감의 주원료인 프로필렌이 합성공정을 거쳐 아크릴계수지로 되여 칠감생산공정으로 옮겨지고있었다.

로동자 리광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합성탑의 1단산화반응기만 보아도 그 안에는 수백개의 사관들이 들어있으며 그것들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 견디게 설계되고 제작되였다. 매우 까다롭고 품이 많이 드는 설비들이지만 이 손으로 하나하나 제작설치한것이여서 그 안전성은 누구보다 우리가 담보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독점기술로 되여있는 폭발구역방지조종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확립하였으니 그 안전성은 100%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놓고 생산을 팡팡 내밀고있는것이다.》

그의 말대로 합성작업반의 칠감생산공정에서는 생산된 칠감들이 쉬임없이 나오고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얀 수성칠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붉은색유성칠감이 생산되여나오고있었다.

이곳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칠감이 첫 지하전동차를 도색하는데 리용되였으며 려명거리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 적극 쓰이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맞게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 열의를 표명하였다. 뿐만아니라 질좋은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실지 그들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색감외에 토양개량 및 수분보충제인 테라코템과 린세균비료와 같이 그 효과성과 실용성이 높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여 해당단위들에 보내주고있었다.

기업소일군 곽철승은 말하였다.

《기업소가 거둔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것이다. 앞으로 기업소에서는 자체로 아크릴계칠감생산능력을 보다 확장해나가겠다. 하여 우리의 기술과 원료로 질좋은 색감을 더 많이 생산해내겠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생산한다

의료용산소는 보건부문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물질이다.

평양시 교외에 이것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보건산소공장이 있다.

산기슭의 자연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진 공장건물은 보기만 하여도 보건산소공장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인 김정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대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을 세울데 대하여 직접 발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지난 5월에는 건설장을 찾으시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장은 이렇게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으로 일떠서게 되였다.》

그의 말대로 공장에는 의료용산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공장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술공정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산소분리기장, 액체산소충진장, 기체산소충진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되고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조종체계가 구축되여있으며 각이한 용적을 가진 의료용산소병들도 그쯘히 갖추어져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순도는 99.7%이상으로서 CO_2함량이 0.01%이하, CO함량이 0.001%이하, 수분함량은 0.006g/m^3이하이다.

지금 공장에서는 질좋은 산소를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된 산소에 대한 분석을 과학화하여 항상 산소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설비들이 자동화, 콤퓨터화된데 맞게 종업원들이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고있으며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는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에 공급되고있다.

앞으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들이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떠서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도 의료용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젊은 교육자부부의 보금자리에서

조국을 다녀간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조선에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리해안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우리 식 사회주의와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되여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조선을 리해하자면 참으로 어려울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살고있는 한 젊은 교육자부부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말을 듣게 되였다.

어느날 저녁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우리는 언제인가 우리와 낯을 익히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보이라공학강좌 교원 홍철을 만나게 되였다. 그의 곁에는 같은 대학 공업경제관리학부 기술경제학강좌 교원인 윤희녀성과 7살난 딸애가 함께 서있었다. 퇴근길에 오른 그들은 우리를 알아보자마자 기뻐하더니 모처럼 만났는데 자기네 집에 들렸다 가라면서 손잡아 이끌었다.

그들이 살고있다는 미래동 77호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2월과 10월 두차례나 다녀가신 건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하여 옹근 하나의 거리를 건설할것을 발기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건설과 입사준비정형까지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친어버이의 사랑을 가슴뜨거이 느껴안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승강기에 올랐다.

승강기를 타고 28층에서 내리니 《홍철》이라고 쓴 문패가 우리의 눈에 안겨왔다.

홍철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말하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설 때 저는 저의 이름이 찍힌 문패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정말 이 집주인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저희부부가 다섯칸짜리 집을 무상으로 받는다는것이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의 소박한 말속에 담겨있는 교육자부부의 진정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서는데 홍철의 딸 홍경영(소학교 1학년 학생)이가 《기자선생님들에게 내가 우리 집을 구경시켜줄래요.》라고 다급히 말하며 뽀르르 앞으로 달려나가는것이였다.

경영이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곳은 공동살림방이고 또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방이고 이곳은 서재, 여기는 자기 방이라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방들마다에는 쏘파, 침대, 책장, 책상, 의자를 비롯한 가구와 비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경영은 《우리 집식구는 세명인데 방은 다섯칸이나 된답니다. 공동살림방을 내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두칸, 내가 두칸을 쓰고 사는데 나에게도 아버지처럼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였다.

행복에 넘친 경영이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정말 그랬다.

부엌에서 칼도마소리를 가락맞게 울리고있던 윤희녀성도 녀성들의 편의가 최대로 마련된 부엌이 마음에 꼭 든다고 하면서 자기는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우리의 곁에 서있던 홍철은 《대학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안작성을 비롯하여 실무능력을 높이느라 드바쁜 시간을 보내다가도 안해와 함께 시간을 맞춰 대학정문을 나서군 하는데 아름다운 대동강유보도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때면 온갖 피로가 다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하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갓 입사한 자기네 집을 찾았던 해외동포들이 방안의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고 30대 젊은 나이의 평범한 교육자부부가 130여㎡나 되는 새 집에 손짐 하나 들고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만약 그것을 리해하자면 인간중시, 인민중시의 사상이 꽃펴나는 조국, 과학중시,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져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아름다와질 강성조선의 래일을 그려보며 그의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홍철, 윤희부부

다시 대지를 활보한 소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1과는 평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치료사업을 잘해주는곳으로 소문이 나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기간 급성척수염, 뇌성마비를 비롯한 어린이질병들을 치료하여 가정들에 웃음꽃을 피워주었다.

소생의 기쁨을 맛본 어린이들중에는 황해남도 신천군 락원고급중학교 소학반 학생 리대권도 있다.

학교로 가다가 갑자기 신경마비로 온몸을 운신하지 못하게 된 리대권이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후송된것은 지난 1월이였다.

고열이 나면서 손과 발이 마비되고 눈에 뜨이는 반응이란 누운채로 눈을 떴다감았다 하는것이 전부, 엉뎅이에 욕창이 생긴데다가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마비가 심장가까이까지 진행되여 대권이의 소생에 대해서는 가늠할수 없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마비를 제때에 막지 못하면 하루이틀내에 환자는 숨을 쉴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생명까지도 잃을수 있는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더 지체하지 않고 한초한초 시간을 다투며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병원적인 긴급의사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소아1과 과장 리건을 책임자로 하고 한봄순을 담당의사로 하는 집중치료조를 무었다.

대권이의 담당의사가 된 한봄순(소아과학강좌 교원)은 종전의 치료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료방식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였으며 선차적으로 환자의 마비를 줄이고 염증성부종을 해소하기 위한데 모를 박았다.

봄순을 비롯한 소아1과 의사, 간호원들은 줄곧 환자의 곁에서 밤낮을 이어가며 맥박과 체온을 재여보면서 치료효과를 관찰하였다.

어린이질병치료를 위해 애쓰고있는 소아1과 의사들

리대권을 일으켜세우고있는 담당의사 한봄순

치료가 시작되여 20여일이 지난 어느날 마비가 어느 정도 풀려 대권이의 손가락이 약하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얼마후에는 자그마한 손에 연필을 쥐고 한자한자 글을 익히며 활기를 띠게 되였다.

어린 환자의 호전에 온 병원이 기뻐하였다.

하지만 봄순을 비롯한 소아1과 의사들은 만족하지 않고 대권이가 쌍지팽이를 버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대지를 활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봄순은 치료조와의 토의밑에 적극적인 회복기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대권이가 신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새 신발도 마련하여주었다.

과의사들은 대권이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매일 그의 입원실을 찾았고 3월 15일이 그의 생일이라는것을 알고는 생일상도 차려주었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옆의 호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들과 면회왔던 사람들, 병원의 책임일군들도 대권이에게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관심을 돌려주었다.

이들의 정성에 의해 대권이는 마침내 제발로 걸음마를 떼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 6월 대권이는 150여일간의 입원생활을 마치고 드디여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대권이의 어머니 박향란녀성은 감동에 젖어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아래 우리 대권이가 돈 한푼 들인것 없이 걸음마를 다시 뗍니다. 우리 대권이가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대권이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한가득 어리였다.

학위학직을 소유한 쟁쟁한 실력가집단, 뜨거운 정성을 지닌 소아1과 의료일군들은 오늘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의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상식

오래동안 쏘파에 앉아있으면 건강에 해롭다

가정생활에 쏘파가 보급됨에 따라 쏘파에 앉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오랜 시간 쏘파에 앉아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것은 앉은 자세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이다.

적당치 못한 자세는 모든 근육조직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긴장을 가져다주며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피흐름에 저항이 생기고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쏘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면 근육이 위축되게 된다.

또한 사람이 쏘파에 앉으면 등을 쏘파에 기대게 된다. 그러면 중력이 사람몸의 중간부와 아래로 치우치게 되여 몸이 점차 S자형으로 되고 등이 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매도 나빠질뿐아니라 적지 않게 폐의 기능에 지장을 주어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편안한것을 위하여 쏘파에 계속 앉는 사람들, 밥먹은 다음에 습관적으로 쏘파에 앉아 텔레비죤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

* * *

그늘없이 자라는 장애어린이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다녀간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말을 먼저 적어본다.

《내가 듣기에는 조선에서 장애자들은 다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와보니 그 말이 다 거짓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정상어린이들처럼 나라의 혜택을 꼭같이 받는 장애어린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늘 한점도 찾아볼수 없다.》(재카나다동포 박수연)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해 해방후부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지금도 그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장애자들에 대한 나라의 혜택은 실로 크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에 와보니 그것을 실지 제눈으로 볼수 있었다.》(국제 올 이어즈기구 국장 본 글린 데이비드)

…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2동에 위치하고있다.

학령전 장애어린이들을 조기적발하고 그들이 정상어린이들처럼 평등한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보육교양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회복원은 주체101(2012)년 3월에 창립되였으며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다음해부터 문을 열었다.

청력장애, 뇌성마비 등 여러 선천성질병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속에서 살던 장애어린이들은 보육교양원들과 회복의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오고있다.

장애어린이들은 작업료법실, 물리료법실, 감각료법실, 청력회복실 등에서 공부도 하고 치료도 받고있다.

가정환경처럼 꾸려진 작업료법실에서 원아들은 색진흙맞추기, 그림맞추기 등 재미나는 놀이들을 진행하는가 하면 기재를 리용하여 혼자서 옷도 입고 단추도 채우며 생활동작들에 익숙하고있다.

각종 놀이기구들이 있는 감각료법실은 원아들이 제일 즐겨찾는 곳이다. 원아들은 공부가 끝나면 이곳에 와서 미끄럼대도 타고 뽈욕조에 들어가기도 한다.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청력회복실에는 청력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순음청력검사기, 고막저항검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이 있어 회복의사들은 장애류형별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고있다.

김은복, 김윤미를 비롯한 보육교양원들은 지능놀이감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 한편 그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받아물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있다.

회복원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르는 영양식품공급도 짜고들고있다.

나라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을 꼭같이 이곳 회복원에도 돌려주고있다.

원아들은 한주일동안 부모의 곁을 떠나있지만 보육교양원들과 회복의사들의 따뜻한 사랑속에 부모 그리운줄 모르고있다.

현무현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주일에 한번씩 몰라보게 달라진 자식을 볼 때면 조국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회복원원아들은 교예《우리는 행복해요》를 비롯한 공연에 참가하여 사람들의 재청을 받았다.

이곳을 졸업한 지강훈, 백금호를 비롯한 장애어린이들은 정상아이들과 꼭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있다.

원장 송향춘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장애어린이들속에서도 울려나오게 보육교양원들과 회복의사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회복치료를 받고있는 장애어린이들

조선속담
(자기본위)

- 종달새 깨그루에 앉아 통천하를 보는체 한다

하찮은 자리에 올라선자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우쭐대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 통천하 - 온 천하를 내려다보며 통찰한다는 뜻.

- 훈장앞에서 문서질

저만 저라고 하면서 잘하는체 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싸리불 떠놓고 불 좋다 한다

곧 사그러질 싸리불을 화로에 떠놓고 불이 좋다고 한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두고 비웃어 이르던 말.

- 남의 집이 가벼워보인다

남이 하는 일은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하는 일보다는 쉽게 여겨진다는것을 이르는 말.

- 발이 맏아들보다 낫다

제일 믿음성이 있는 맏아들보다도 자기자신을 믿는것이 제일이라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새끼는 제 새끼가 고와보이고 색시는 남의 색시가 고와보인다

낡은 사상의식에서: 자식은 자기 자식이 곱고 안해는 남의 안해가 곱다고 보는 자기본위적인 낡은 관점을 이르던 말.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제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심한것 같이 느껴진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

미래의 금메달 수상자들로

수도 평양에 있는 모란봉구역청소년체육학교는 전국적으로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이 잘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 이 학교에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4중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인 인민체육인 계순희와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안금애, 공훈체육인들인 리경옥, 황춘금, 조성희선수들, 지난해에 있은 아시아유술청년선수권대회 44kg급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고 금메달을 받은 조선향선수를 비롯하여 많은 최우수선수들을 배출하였다. 하여 이 체육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높다.

부교장 오명환은 말하였다.

《학교에서는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선수후비육성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선수후비선발과 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학생들을 나라의 체육발전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미래의 금메달수상자들로 키워나가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모범체육구역칭호를 수여받은 모란봉구역은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은 구역이고 또 자기 학교가 체육부문에서 처음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학교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대로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교수행정사업과 함께 모든 체육훈련의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었다. 훈련장마다에는 현대적인 속도측정기와 검측기재, 전문육체훈련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는데 교원들은 그것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훈련을 주고있었다. 특징적인것은 학교에서 어느 한 종목만이 아닌 모든 종목마다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였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유술, 탁구, 축구, 송구 등 5개 종목이 있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경기대회에서 모든 종목이 1, 2등의 영예를 쟁취하고있다. 여기서 배출된 선수들이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도 되고있다.》라고 유술지도교원 윤기범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진행된 전국적인 경기대회 유술종목에서도 우수한 선수들이 나왔다는것이였다.

그 학생들이 바로 고급 1학년 9반의 김선미와 김지혜, 고급 1학년 7반의 림수정학생들이였다. 그들은 육체적준비가 좋고 특기기술을 잘 살려나가고있는데 그들의 훈련모습은 전문체육단의 선수들 못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학교에서 배출된 계순희, 조선향선수들처럼 아시아선수권뿐만아니라 세계선수권을 쟁취하는것이였다.

탁구반학생들도 다를바 없었다. 12살미만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25차 동아시아소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김금창, 박성은, 김수홍학생들의 꿈도 역시 세계적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제25차 동아시아소년탁구선수권대회참가를 위한 선발경기에서 우승하여 그들모두가 선수권대회에 참가한데도 있지만 보다는 처음 참가하는 국제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긍지와 자부심때문일것이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있었다. 특히 검측기재를 리용하여 탁구의 집중공치기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훈련을 매우 강도높이 하였다.

그런 모습은 축구와 송구, 륙상반학생들속에서도 볼수 있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학생들은 선배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또 하여 자기 조국을 빛내이는 미래의 금메달수상자들로 준비해가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

조선인민과 세계 항공체육전문가,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이 지난 9월 원산시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서는 군용 및 민용비행기들의 비행술보여주기와 국내외락하산선수 및 애호가들의 락하산강하기교, 모형항공기들의 조종비행, 유람비행과 함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높은 비행술을 자랑하는 조선인민군 전투기비행사들의 기교비행이 이번 축전에서 기본을 이루었다.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에서 비행사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조종술로 각이한 고도에서 속도를 변화시키며 수평, 상승, 강하, 선회, 초저공, 배면비행 등 기교동작들을 능숙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련속회전비행, 고도 5m에서의 초저공비행, 낮은 고도에서의 착륙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하고 멋진 동작들을 펼쳐보이였다.

그가운데서도 공화국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이 절정을 이루었다. 쌍기편대를 짓고 비행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담찬 모습에 관람자들은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였다.

민용항공기비행사들도 전투기비행사들에게 뒤질세라 고도 500m에서 8자형항로비행, S자형선회기동, 급상승, 리착륙 등의 기교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국내외락하산선수 및 애호가들의 락하산강하기교, 모형항공기들의 조종비행 등은 축전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평양항공구락부 락하산선수들은 1 200 ~ 2 000m의 높이에서 비행기에서 리탈하여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축포탄과 연막으로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공중에서 5인탑을 쌓는 등 난도높은 기교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모형항공기선수들은 속도비행과 360°회전, 빠른 속도로 강하하면서 동체를 좌우로 휘젓는 주전비행, 배면비행, 공중에 머무르는 체공비행뿐아니라 연막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등 여러가지 기교동작들로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항공체육기술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축전참가자들은 희망에 따라 각이한 기종의 비행기들을 타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전경을 부감하였고 국립민족예술단, 강원도예술단의 예술인들과 도안의 학생소년들, 유치원어린이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도 보았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변찬우

광업도시의 새 모습

단천항의 일부

단천시 북천유치원에서

단천수산사업소에서의 바다가양식

황해남도 은률군으로부터 시작된 올해 고향소식 취재길은 어느덧 함경남도 단천시로 이어졌다.

시내를 가로지른 넓은 도로들과 현대미를 갖추고 새롭게 일떠선 공공건물들, 다층살림집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치는 공원…

단천시의 이채로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가던 우리는 국수집앞에서 단천제련소에서 일하고있는 리명일을 만났다. 알고보니 그는 로씨야 싸할린에서 살고있는 리구율동포의 조카였다.

우리의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단천하면 아마 마그네사이트와 연, 아연부터 떠올릴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단천시에는 대흥과 금골(검덕), 룡양을 비롯하여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들이 많습니다. 아마 단천에 대해 잘 알려면 먼저 금골부터 가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제련소에도 꼭 오십시오.》

우리는 그의 말대로 첫 취재방향을 금골로 택하였다. 이곳 연, 아연광맥의 생김새가 마치 거미와 같다고 하여 《거미덕》으로 불리우던것이 그후 검덕으로 되였다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일군인 리룡창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으며 우리는 기업소를 돌아보았다.

금골광산 4.5갱 채광3소대장 고경찬은 이렇게 말하였다.

《앞선 굴진방법을 받아들이고 발파회수를 늘여 광석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의 뒤를 따라 우리도 년간생산계획과 200일전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지금 우리의 뒤를 따라 로은갱, 은덕갱 등 여러 갱의 많은 소대들이 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제3선광장에서도 선광실수률을 최대로 높여 한g의 연, 아연정광이라도 더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를 목격할수 있었다.

우리는 해방전 일제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이였던 검덕광산이 오늘은 현대적인 채굴설비와 운반설비, 선광장들을 갖추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몫을 수행하고있는 광업련합기업소로 전변된 모습을 다시 새겨보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에 이어 단천제련소로 향하였다.

제련소구내에 들어서던 우리는 동물사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곰과 원숭이, 공작새를 비롯한 짐승들이 있는 동물사를 놀라움과 의혹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리구율동포의 조카 리명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해인가 제련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로운 공기를 종업원들이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고 후에는 바람방향까지 가늠해보시며 신단천지구에 제련소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련소의 공기가 그리도 맑은것이였다. 우리는 제련소의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전해직장과 유리섬유직장, 산화아연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제련소의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깃들어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유색금속과 희유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열의가 그들의 얼굴과 기대마다에 어려있었다.

제련소뿐이 아니였다. 우리가 돌아본 금골과 대흥, 룡양은 물론 단천마그네샤공장을 비롯하여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항 등 시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단천시를 새 공업도시로 일떠세워주시려 사색과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었다.

우리는 세멘트공장, 기계공장, 기초식품공장, 영예군인반도체공장, 종이공장 등도 돌아보았다. 풍부한 지방원료원천을 리용하여 세멘트와 기계설비들, 갖가지 식료품을 비롯하여 바라고 원하는것을 척척 만들어내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단천의 래일을 그려보며 취재길을 이어나갔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단천제련소의 저녁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2선광장

탐구로 이어진 나날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연구사 최동륜은 이젠 80을 넘긴 나이이다. 그에게는 인민과학자라는 영예도 있고 후보원사 교수 박사 등의 학위학직과 교원, 강좌장, 연구사 등의 경력도 있다.

하지만 그는 수십년세월을 언제나 한모습으로 성실하게, 량심적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하고있다.

50여년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나라의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경제강국건설사업, 국방력강화에 자기를 바쳐온 최동륜에게 있어서 연구사업자체가 그의 삶이였다. 그의 이 연구자세에 끌려 때없이 학생들과 연구사들이 그를 찾아오군 한다.

침착하면서도 친절한 그의 설명은 늘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다심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최동륜

여가시간에 그가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다름바가 없다.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을 하고있을 때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 밤이면 늘 꿈에서 그리운 집과 부모형제들을 보군 하였는데 조국에 돌아와서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의 나날이 한번도 꿈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있는것이 바로 조국이며 그 조국과 나는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조국의 귀중함을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주는 그의 이야기는 늘 그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생각을 불러일으키군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지도첩을 만들 때였다. 그때 강좌장사업을 하고있던 그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게 되였다.

강의를 하는 속에서 지도첩을 만들자면 몇년이 걸려야 하였지만 그는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지도첩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며 지도첩을 만들기 위한 편성요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주제를 잡고 요강들을 작성하였다. 매 요강들의 자료는 다 옹근 하나의 교과서의 내용과 맞먹었다.

남은것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시 확정하는 사업이였다. 이 사업에 망라된 수십명의 연구사들이 자료확인을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떠나갈 때 그가 간 곳은 제일 멀고 힘든 함경북도였다. 평양에서부터 기차와 자동차를 타고 또 걸어서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수천리길을 다니는 나날은 정말 쉽지 않았다.

어느날 목적하였던 곳에 도착하니 자료를 알고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것이였다. 어느덧 저녁해도 지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도첩에 찍힐 하나의 작은 점의 자료확인을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났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길을 걷는 그에게 지나온 나날들이 떠올랐다.

중국 길림성 연길현 명월구에서 태여나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새기며 성장하던 나날과 해방후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배움의 나래를 펼치였고 전후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 나날들,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강좌장으로 사업한 나날들… 생각할수록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키워준 조국의 고마운 손길이 가슴에 사무쳐 들었다.

피타는 노력끝에 최동륜과 대학의 연구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혁명력사지도첩》과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구호문헌지도첩》,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로정도》를 훌륭히 편집출판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5개의 학과목을 개척하고 《측량학》, 《사진측량학》을 비롯한 4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과 100여건의 소론문들을 집필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학연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뼈심들여 연구한 가치있는 자료들도 서슴없이 넘겨주면서 후비양성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6명의 박사를 비롯한 16명의 학위소유자들을 키워냈다.

여러차례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5차례의 감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흔번째, 여든번째 생일을 맞으며 보내주신 생일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국기훈장1급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들…

이 모든것은 탐구로 이어진 나날에 새겨진 그의 빛나는 위훈들을 말없이 말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청춘의 활력에 넘쳐

상식 3정

조선봉건왕조시기 19세기에 들어와 봉건적착취는 극도에 이르렀다. 이 시기 인민들에 대한 주요착취항목은 전세, 군포, 환자곡, 진상, 곡물, 부역과 여러가지 가렴잡세였다. 그중 전세, 군포, 환자곡관계의 착취제도를 3정－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였다.

전정은 전세관계의 착취제도를 말한다. 관리들과 아전들은 전세와 부가세를 받는 과정에 말(체적의 측정단위)과 되(체적의 측정단위)를 롱간질하여 많은 쌀을 더 수탈하였다.

군정은 장정들에게서 병역대신 군포(무명)를 수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봉건통치배들은 군사제도가 문란해지자 병역대상자들로부터 무명을 받고 그것으로 군대를 고용하였는데 군포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수를 늘이였으며 관리와 아전들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다.

환정은 《기민구제》의 허울밑에 농민들에게 봄에 국가세곡창고의 낟알을 꾸어주고 가을에 리자를 붙여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19세기에 들어와서 환정은 《기민구제》의 명목마저 없어지고 날강도적인 고리대착취(추가적인 착취수단)제도로 변하였다.

* *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흑룡강성 계서시지부 지부장 림명순고모 앞

변함없이 걸으렵니다

고모,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리문, 리인철형님과 형수님들도 모두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조국에 온 고모를 만나본지 한해남짓이 흘렀지만 상봉하던 때가 엊그제일인듯싶습니다.

더우기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보니 고모가 못견디게 그리워집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요새 고모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 고모가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때가 드문합니다.

그러느라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살아온 고모의 모습이 돌이켜집니다.

해마다 2월과 4월을 비롯하여 국가적명절, 기념일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며 조국을 찾았고 어떻게 하나 조국에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으로 살아온 고모가 아닙니까.

언제한번 조국과 자신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고모이기에 나이도 많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조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조국으로 이어지는 고모의 그 걸음이 애국과 잇닿은 큰걸음임을 나는 지금에 와서 더 깊이 깨달은듯 합니다. 그리고 가정사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고모의 그 마음에서 우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해인가 조국에 나왔을 때 우리들에게 새로 나온 노래《발걸음》을 아는가고, 함께 부르자고 하며 선창을 떼던 고모의 모습이.

바로 그래서 조국에 올적마다 우리들에게 나는 해외에서 애국사업을 잘하고 너희들은 조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너희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제일 기쁘다고, 그러면 조국에 나와 우리들을 축하해주겠다고 하던 고모입니다.

우리는 고모의 그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주시 국토환경보호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은 조국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무 한그루를 심고 비배관리를 하여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와 도로보수를 잘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원료를 실은 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관리원들과의 사업도 짜고들고있습니다.

어머니와 안해도 마을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이랍니다. 동과 인민반사업은 물론 집안팎을 거두는 일솜씨가 알뜰하다고 동네사람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급중학교와 소학교에 다니는 은비와 은미도 공부를 잘하고있습니다. 은비는 몇달전에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고모할머니가 조국에 오시면 5점최우등을 한 자랑과 콤퓨터실기, 노래자랑을 보여드리겠다고 극성입니다.

고모, 보고싶은 마음, 하고싶은 말은 끝이 없을상싶습니다. 편지를 끝맺으면서 확언하고싶은것은 고모가 그러한것처럼 우리도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것입니다.

그럼 몸건강하여 평양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남도 안주시 운학리 32인민반
조카 림문성 올림

《서방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는 거짓말투성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3일동안 방문할수 있는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가 나에게 차례졌다.

조선방문은 베이징에서 함께 평양방문의 길에 오른 서방동료들과 나의 머리속에 들어찼던 온갖 생각을 뒤집어엎고 나의 생활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체험으로 되였다.

나를 놀라게 한것처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경탄시킬수 있는 북조선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들을 아래에 서술하겠다.

평양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다.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평양은 믿기 어려울만치 잘 관리되고있었다. 조선전쟁(조선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시기 도시전체가 미군의 주단식폭격을 받아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여기에 성성한 건물이라고는 2채밖에 없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넓은 록지들과 마찬가지로 조각상들과 거대한 공공건물들도 인상깊었다. 그러한 록지들에서는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온 도시에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었으며 지은지 오래된 집들도 잘 유지관리되고있었다. 듣기에는 평양의 밤이 어둡다고 하였는데 평양에는 서방처럼 밤마다 번쩍거리는 전혀 쓸데없는 광고판들이 없으며 도시의 많은 곳이 조명장식으로 하여 아름다왔다.

북조선인들은 자주 웃고 미소를 지으며 롱담을 한다.

독자들은 필경 나에게《그것은 순수 보여주기 위한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볼것이다.

만일 내가 만나본 모든 조선사람들의 그렇듯 진실한 웃음이 지어낸것이라면 이것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길거리의 사람들도 자기곁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 많은 승용차들속에서 외국인이 탄 승용차를 알아보고《기쁜 표정을 연출해내는》 수를 쓰는것으로 된다.

조선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주제의 유모아들이 많은데 그가운데는 군사분계선의 미국인들과 관련한것도 있다.

실례를 들어보자. 미군병사가 군사분계선에서 조선병사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조선병사가 담배를 받아 피우는데 미군병사는 미국을 증오한다면서 왜 미국담배를 피우는가고 물었다. 이에 조선병사는《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우는것이 아니라 태우는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사실 북조선에서도 사람들의 교제방식은 개방적인 서방에서와 마찬가지이며 사람들의 성격은 천태만상이다. 체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취미는 각양각색이며 자기의 마음에 드는것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입고다닌다.

조선에서는 농촌마을사람들도 매우 알맞는 옷차림을 하고다닌다. 나는 옷을 깨끗하지 못하게 입고다니거나 해진 옷을 입고다니는 사람들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들과 녀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것이 아니였다.

장미색의 세련된 옷차림이나 전통적인 조선치마저고리 등 매우 밝은 색갈의 옷을 입은 녀성들을 자주 볼수 있다. 남성들은 자주 넥타이를 매고다니거나 샤쯔를 입고 정장을 하고다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복과 같은 보다 일상적인 옷을 입고다니는것도 흔치 않게 볼수 있다.

나는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서방문화의 일부 가장 나쁜 측면이 무섭게 전파되고있는것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조선사람들이 서방문화를 조심히 대하는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다.

고려항공회사 려객기는 사실상 봉사와 편리성의 측면에서 적어도 내가 리용해본 20여개 항공회사의 려객기들보다 훨씬 나았다.

비행전기간 흥미있는 영화들(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는 매우 재미있었다.)을 보여주고 맛이 괜찮은 햄버거와 여러가지 음료(커피, 차, 맥주, 단물)를 봉사하였다.

이 나라에는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여러가지 맥주가 있으며 료리를 낼 때에는 대체로 약간의 맥주를 곁들인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지 않으며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사회주의원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다.

나는 적어도 100명의 미국인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대다수가 평양마라손경기에 외국인마라손애호가들의 참가가 승인된 덕분에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한 부부는 이번까지 두번째로 마라손경기에 참가한다고 하면서 그 전해에도 경기에 참가하였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싸이트들의 정보를 인용한 서방출판물들의 보도는 완전한 허튼 소리이다. 조선을 자주 방문하여 이 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있는 서방인사들이 그렇게 말하고있다. 정치범수용소나 감옥에 대해 떠드는것은 순전히 이 나라를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깜빠니야이다.

이 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외곡하는 그러한 깜빠니야는 조선인민에게 해를 주게 될것이다.

조선사람들은 주저없이 자기들의 즐거운 유희에 손님들을 초청한다.

평양에서는 국가적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일련의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일부 행사들은 공식적으로 조직된것이였다.

실례로 무도회를 들수 있는데 넓은 광장들에서 유명한 조선노래들의 반주에 맞추어 수백명의 사람들이 춤을 춘다.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진행되군 하는 가족들놀이가 인상이 깊다. 가족들놀이가 고조에 오르면 남녀로소가 덩실덩실 민족춤을 춘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춤판에 끼여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수집음이 구실로 되지 못한다.

춤판에 뛰여든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손을 잡아끌며 자기들도 잘하지 못하는 춤동작들을 배워주느라고 애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북조선사람들이 내가 지금껏 만나본적이 없는 가장 열정적이고 진실하며 활동적인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조선사람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를 이겨내고 조선전쟁에서 많은 인구를 잃었고 또 전쟁접경의 정세속에서도 자기의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있는것을 보면 그들이 대단히 장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료의무교육에서와 무상치료에서의 성과, 방랑자들이 없는 사회, 긍지높고 당당한 인민, 이 나라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전면적인 표상을 가지려면 바로 이것을 상상해보아야 할것이다.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글을 쓴다는 사실자체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심히 잘못 리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선이 안고있는 난문제들을 다른 문제들과 결부시켜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한때 억압받던 민족이 일극세계수립도상에서 다른 국가들을 집어삼키려는 렬강들의 노예적지배에서 해방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는것이다.

나는 핵무기에 대해 말한다는것을 잊어버릴번 하였다. 가령 미국서부의 절반땅을 차지한 북조선군이 뉴욕의 해안가에서 년례적인 군사연습을 진행하면서 맨하탄에 대한 주단식폭격과 미국의 전령토점령훈련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이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키우는것이 리상적일것이다.

조선사람들은 호전광들이 아니며 그 무슨 군부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종밑에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험악한 사태들을 보고 그들은 조선이 독립국가로 존재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군정치와 핵억제력이라는 진리를 절대적인것으로 더욱 절감하였을것이다.

나는 조선과 다른 나라 인민들사이에 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나와 함께 려행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목격한 그것이 생각하였던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환희의 감정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조선사람들과의 교제과정에 많은것을 배웠을것이다.

프랑스 마르세이유 까르띠
(관광객)

유모아

렬차장의 려행

아들과 함께 기차에 오른 한 손님이 렬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손님: 《당신은 기차를 얼마나 탔소?》

렬차장: 《3년이 넘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야! 3년이나 기차를 탔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아지미는 정말 먼곳으로 려행하는가봅니다.》

* * *

활발해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실장 문정숙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전례없이 높아진 시대라고 말하고있다. 그 자주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의 생활력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기에 오늘날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문정숙: 그렇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세기적념원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갈 때에 실현된다.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주체사상연구조직이다.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판도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선각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였는데 1960년대부터는 그것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 의하여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주체58(1969)년 4월 말리에서 고등사범학교 교원, 학생들에 의하여 첫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된 이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이어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나라별 및 대륙별기구들이 련이어 나오는 속에 주체67(1978)년 4월 전세계적주체사상연구조직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 현재 세계에는 110여개 나라에 1 000여개의 연구소조와 27개의 전국위원회, 4개의 대륙별기구 그리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있다.

기자: 그러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지금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평양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진행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비롯하여 중요계기때마다 평양과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올해 9월에도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는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은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으로 하여 세기를 이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다시금 깊이 연구체득하였다.

문정숙: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주체사상국제토론회와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출판보도선전, 주체사상로작전시회, 사진전시회, 해설강연회 등을 통하여서도 진행되고있다. 각이한 직업을 가진 세계의 광범한 주체사상신봉자들과 각급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수많은 출판보도선전기관들은 《백봉문고》

와 《주체사상연구》 그리고 단행본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선전보급하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각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연구조직들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담화, 사진전시회, 해설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신문,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수많이 실었다.

더우기 조선에 와본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조선이 잘되여야 사회주의가 승리한다,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이 부럽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오늘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은 날을 따라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주체사상이 연구보급되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 * *

통일운동사에 남을 애국적장거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것은 오늘 전체 조선민족의 막을수 없는 통일의지이다.

그 의지를 안고 지난 10월 조국에서는 력사적인 10. 4선언발표 9돐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이 진행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행진단성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열의를 안고 개성으로 향하였다.

개성으로 뻗은 도로를 기세차게 누벼나가는 자전거행진단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는 통일성업에 한몸바칠 굳은 맹세가 비껴있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출정의 닻을 올린 통일자전거행진은 개성의 판문점에 이르러 삼천리강토를 가로지른 원한의 분렬장벽으로 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

통일자전거행진단 참가자들은 판문각앞마당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조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리성적인 사고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진단의 전체 성원들은 해외에서도 민족의 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련대, 련합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며 통일의 축포가 오를 그날까지 애국애족의 한마음을 안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인 최수봉 중국지역준비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통일자전거행진과정에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다시금 눈물겹게 목격하였고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속호소를 들을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는 조국통일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조선민족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외면할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 숭고한 사명임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인 10. 4선언발표 9돐을 맞으며 진행된 통일자전거행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한해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보낸 뜻깊은 2016년이 하루하루 저물어가고있습니다.

이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안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추억이 갈피갈피 새겨진 취재수첩의 페지들을 한장한장 펼쳐가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적혀져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도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한 내용, 해외동포조직들에서 조국의 중요기념일들을 계기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한 내용,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의 인민들과 마음도 뜻도 함께 맞추며 걸어온 나날을 비롯하여 동포들의 조국방문소감 등이…

돌이켜보면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참으로 뜻깊은 해였습니다.

동포여러분은 새해 첫 아침에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을 더 힘있게 다그쳐갈 맹세를 다지고 다지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으로 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력사의 시각을 맞이하는 순간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단장 차상보부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축기를 드릴 때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당 제7차대회 보고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하여 늘 마음을 기울이는 어머니처럼 조국에서는 해외동포청년들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장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자랑높이 떨쳐가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새 세대 동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습니다.

진정 2016년 온 한해는 해외동포여러분의 그 드높은 결의, 빛나는 실천으로 흘러온 한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해외동포들과 동포조직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잇고 조국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집회와 담화, 성명 등으로 당당히 맞서싸웠습니다.

우리의 취재수첩에는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나눈 이야기도 적혀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20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중국베이징송장환구공예품유한공사 총경리 리산호동포가 《고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김정일**화축전이 년례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 국제기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울려 축전이 가지는 의의가 더 큽니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해외동포들이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문수물놀이장, 릉라곱등어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고 한결같이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라고 확신성있게 한 이야기들도 감회깊이 돌이켜집니다.

지난 9월 중순,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온 20명의 로인들이 금강산을 돌아보고 《그토록 유명짜한 금강산을 나이 팔십이 다 되여서야 가본것이 참으로 후회된다. 그래서 구룡폭포구역과 만물상구역의 정점까지 우리모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올라가보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볼수록 우리는 해외동포들에게 더해만가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애국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여러분에게 삼가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럼 보다 아름답고 창창한 래일을 위하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통일의 새 아침을 위하여 우리 앞으로도 마음과 뜻을 합쳐나갑시다.

조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하며…

《금수강산》편집부

친혈육의 정

나는 고국에 처음 왔다.

내가 본 견해에 의하면 고국은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다. 다시말하여 나의 눈으로 본 고국의 모습은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정이 넘치는 곳이였다.

평양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안내선생으로부터 숙소와 식당 등 가는 곳마다에서 만난 고국인민들은 모두 언제나 밝은 얼굴과 상냥한 미소, 따뜻한 정으로 우리를 대해주었고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을 써주었다. 그것은 지어낸 마음과 사심이 조금도 없는 친혈육의 정이고 마음이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자연히 아버지생각이 났다. 사실 나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고국에 몇번 다녀왔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심정을 미처 몰랐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 와보니 왜 아버지가 그렇게도 고국에 와보고싶어하였는지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었다. 그래서 후회는 앞서는 법이 없다는 말도 나온것 같다.

나에게 진정한 인간의 정을 알게 해주고 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도 서슴없이 바치는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준 고국이 나에게 있는것을 나는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고국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찾아하겠다.

중국 연변대학 교수 차해룡

볼수록 돋보이는 조국의 녀성들

지구상에는 수많은 녀성들이 살고있지만 조국의 녀성들만큼 강의하고 의리심깊은 녀성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국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녀성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른데가 없다.

사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과 전대미문의 제재소동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어 솔직한 말로 해외에서 살면서 나는 그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 특히 녀성적인 심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며 나라일에도 극성인 조국의 녀성들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조국에 와서 나는 그것이 괜한 걱정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국의 녀성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초소들마다에서 완강하면서도 이악한 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자랑스럽게 내놓는가 하면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다 바쳐 소생시켜주었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처녀어머니》가 되는것과 같은 고상한 미풍을 지닌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국방문의 나날 나는 수많이 들을수 있었고 또 텔레비죤을 통하여 보기도 하였다.

조국의 녀성들이 발휘하는 이런 강의하고도 고상한 의리심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볼수록 돋보이는 조국의 녀성들이다. 나는 앞으로 그들처럼 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무순시지부 지부장 김옥순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에서 진행되였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특히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지난날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 시들어가던 재일본조선청년들이 이역땅에서도 가슴펴고 떳떳이 동포사회의 주력군으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분들의 품속에서 저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은 일본반동들의 횡포하고 끈질긴 탄압과 박해를 과감히 물리치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자랑스러운 전성기를 펼쳐갈수 있었으며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걷는 청년들로, 일군으로, 지식인, 상공인으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운동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며 그분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하여온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투쟁로정이였습니다. 전세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날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우리 해외동포 3세, 4세들의 응당한 본분이며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국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조선청년들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는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담아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결부하여 부르도록 엄숙히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일본조선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전위대인 조국의 청년들과 함께 죽어도 애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불멸의 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미래를 억세게 떠메고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입니다. 특히 온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청년들과 함께 《통일청년강국의 광활한 래일을 향하여 조선청년들 앞으로!》의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혀준 길을 따라 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성스러운 기발이 휘날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미에현본부
부위원장 신정춘

높아가는 자주통일, 반전반미기운

올해는 해외동포조직들과 동포들속에서 자주통일, 반전반미기운이 이전에 비해 보다 높아진 해라고 말할수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통일애국의 호소, 통일의 기치라고 하면서 담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통일기운은 날과 달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지난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받들고 해외동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조국해방 71돐이 되는 올해에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련석회의가 파탄위기에 처하게 되자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련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본지역준비위원회 위원은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련석회의 일본지역준비위원회 위원은 담화에서 북측준비위원회의 공개편지에 호응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일본과 미국, 중국, 독립국가협동체, 유럽, 카나다, 오세안주에 지역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이어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련석회의개최제안의 정당성과 견인력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통일자주독립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반전반미의 함성도 여느때없이 높았다.

재일동포청년들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특대형도발망동을 단죄하여 재일조선청년항의단을 구성하고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제재와 핵공갈, 침략전쟁책동을 중지하라!》 등의 글발이 씌여진 현수막과 프랑카드를 들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끼르기즈스딴고통련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이 날로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는것과 관련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 단 하나의 도발불찌라도 튕긴다면 조국인민들과 함께 그 즉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도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긴장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싸드》배치결정을 반대하는 동포들의 함성 또한 드높았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김칠성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담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재미동포들은 미국 워싱톤 백악관앞에서《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선전물을 나누어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싸드》배치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폭로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남녘땅 그 어느곳에도 《싸드》가 배치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으며 재미민가협량심수후원회는 《전쟁의 전주곡, 싸드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재미동포들은 《싸드》반대 10만서명운동도 적극 벌리였다.

재미동포들은 5.18광주인민봉기 36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운동들도 벌리였다.

본사기자 엄향심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을 단죄규탄하는 재일동포청년들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련대하는 재미동포들

리순신과 로인

1597년 9월 어느날이였다.

리순신은 적선 수백척이 남해로부터 서해쪽으로 침공해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왜적들이 서해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10여척의 배로 어떻게 왜적의 배를 막아낸단 말인가.)

리순신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적들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다를 막아버리면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갑자기 무엇인가 머리에 떠올랐다.

(울돌목물속에 쇠사슬을 늘이고 왜적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들이자. 그랬다가 썰물에 배들이 떠내려갈 때 쇠사슬에 걸려 뒤집히게 하자.)

그러나 아직은 그 구상에 대한 확신이 가지 않아 리순신은 한자리에서 모대기고있었다.

이때 젊은 군사와 한 로인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부자간이였는데 리순신은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웬일인고?》

리순신은 나지막하나 엄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통제사어른께 아뢰일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왔나이다.》

《무슨 말을?》

《소인의 생각으로는 울돌목을 막으면 능히 적은 수로 많은 배들과 싸울수 있다고보나이다.》

로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뭣이라고?》

리순신의 눈은 빛났다. 그는 모르는척 하고 다시 물었다. 자기의 구상을 확증하고싶었던것이다.

《어떻게 한단 말인고?》

《밀물때를 맞추어서 왜적들의 배를 끌어들이면 썰물때는 밀려서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배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겠는고?》

《울돌목의 물살이 너무 빠르기때문에 그곳에서는 배를 멈추어세우지 못할줄로 아뢰옵니다. 그래 소인의 생각에는 울돌목물속에 쇠사슬을 늘여놓으면 어떨가 하오이다.》

《쇠사슬을?》

《왜적의 배들이 흘러내리다가 쇠사슬에 걸리면 웬간한 배는 뒤집히고말줄로 아뢰나이다.》

《고맙네, 고맙네. 그대들은 이제부터 나의 옆에서 이 통제사를 도우라.》

리순신은 희색이 만면하여 로인의 손목을 꽉 쥐였다.

며칠후 드디여 왜적배 330여척이 조선수군이 배치되여있는 울돌목으로 공격해왔다.

《푸른 기를 올려라!》

리순신의 출동명령에 따라 조선수군의 함선 12척이 일자형으로 진을 쳤다. 적들은 상대의 수가 적은것을 보고 포위진을 치면서 공격하였다.

조선수군의 일부 장수들이 적의 수가 너무도 많은데 놀래여 얼마간 뒤로 물러서려는 기색을 보이였다. 만약 12척의 배들중에서 한척이라도 물러서면 적들에게 완전포위될 우려가 있었다.

《통제사어른, 썰물때가 가까와오는데 물러서면 안될줄로 아뢰나이다.》

로인이 안타까운듯 옆에서 말했다.

《우리 배부터 앞장서라. 왜적들을 맞받아나가자.》

리순신은 앞장에서 나가면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일시 뒤로 물러섰던 배들이 돌격전에 가담하였다.

각종 총통과 포들이 적배들을 향해 불덩어리들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조선수군이 의례히 도망치리라 생각하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적의 지휘선은 잠간사이에 불덩어리로 되였다. 지휘선을 잃어버린 왜적들의 사기는 갑자기 떨어졌다.

《통제사어른, 썰물이 시작되오이다. 우리의 배들이 밀려내려가지 않게 하시오이다.》

로인이 바다물을 보며 말했다.

왜적의 배들이 조수에 밀리여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런 속에 적들의 배는 점점 밀려내려 가장 좁은 여울목에 이르렀다.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왜적배들이 기슭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울돌목물속에 늘여놓은 쇠사슬로 해서 배를 기슭에 대지 못하고 통채로 뒤집혀지군 하였다.

울돌목싸움에서 왜적들의 배 30여척이 녹아나고 4 000여명의 적들이 격멸되였다.

수군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있을 때 리순신은 숙연히 무릎을 꿇고앉아 로인을 붙안고 있었다. 울돌바다 마지막싸움이 한창일 때 왜적들의 눈먼총알에 로인이 전사하였던것이다.

평범한 이 늙은 어부가 자기의 작전구상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늙은이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어주어야겠소.》

리순신은 옆에 있는 장수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 * *

겨울날의 가을향기

안녕하십니까.

희망으로 가슴부풀던 새해 2016년을 맞이하던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찬바람이 솔솔 부는 수도의 거리를 거닐며 동포여러분의 모습을 《금수강산》지면에 수놓아온 한해를 추억하고있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군고구마향기가 풍겨오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얼마간 떨어진 곳에 있는 군고구마매대에서 김이 문문 나는 군고구마를 사들고 맛있게 들고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보이였습니다.

독자여러분도 체험하였겠지만 군고구마에 한번 맛을 들이면 아마 군고구마매대를 그냥은 못 지나갈것입니다.

우리는 군고구마향기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매대로 다가갔습니다.

매대안을 들여다보니 마주보이는 벽쪽에 구이로가 있었고 봉사원녀성이 그안에서 잘 구워진 고구마를 꺼내여 종이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 손님들에게 팔아주고있었습니다.

대학생처녀들은 저마다 따끈따끈한 군고구마의 껍질을 살짝 벗기고 새노랗게 잘 구워진 부분을 한입 떼여먹고는 좋아라 깔깔 웃는데 늙을수록 정이 깊어진다는 옛사람들의 말이 그를세라 한 로인내외가 저마다 큰것을 양보하고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생 총각애의 어머니인 젊은 녀인은 구수한 군고구마향기에 감질이 나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아들에게 천천히 식혀서 먹어야 한다면서 입김으로 훌훌 불어주고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정겹게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구마가 재배되기 시작한 수백년전부터 조선사람들은 봄내, 여름내 고구마를 심어가꾸고 가을이 오면 고구마껍질이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알알이 정성다해 캐여 10~15℃의 온도에서 보관하였다가는 달밝은 저녁마다 집뜨락에 화로를 놓고 그 불에 고구마를 슬슬 구워먹는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지난 시기와 비할바없이 높아진 오늘날에 와서도 군고구마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군고구마향기가 평양의 그 어느 거리에서나 즐겨 맡을수 있는 가을향기이라지만 그것은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여러분에게는 쉽게 리해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조국을 찾아온 미국에서 살고있는 한영자동포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군고구마매대에서 자기 손으로 군고구마를 직접 사서 맛을 보고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남강원도의 외진 농촌마을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 우리 어머니는 가을이 되면 제손으로 심어가꾼 고구마를 늘 구워주군 하였어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때의 그 맛과 향기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놀라운것은 고구마수확철인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그것도 농촌도 아닌 번화한 도시에서 신선한 고구마가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구워지고있는것입니다.》

동포의 놀라움은 그뿐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평양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군고구마매대에서 눅은 값으로 군고구마를 사서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더우기는 수십년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수도시민들에게 밤과 함께 고구마를 구워 팔아주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시기에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여도 이런 풍경은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는 봉사원의 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울날의 가을향기, 군고구마향기는 평양의 그 어느 거리에서나 차넘치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도 평양에 오시면 거리마다에 있는 군고구마매대에서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사서 맛보면 풍요한 가을향기가 조국의 향기처럼 온 가슴에 따뜻이 스며들게 될것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해

흥성이는 군고구마매대에서

동지날의 팥죽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별식으로 팥죽을 쑤어먹었는데 특히 동지날에 팥죽을 먹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여 오늘도 전해져내려오고있다.

팥죽은 팥을 삶은 물에 흰쌀을 넣고 쑨 죽이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동지날을 《작은 설날》이라고 하며 붉은 팥죽을 쑤어먹었는데 죽속에 찰수수가루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들어넣고 꿀을 타서 철음식으로 삼았으며 제사에도 쓴다고 전해지고있다.

지난날 가정주부들은 동지팥죽을 쑬 때 난알가루로 새알심을 몇개 만들어 죽에 넣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는데 만약 큰 새알심이 차례지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특별히 쑤어먹은 팥죽에는 동지죽 또는 오그랑죽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였다.

팥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만든다.

먼저 찹쌀을 물에 불구어 씻어서 가루를 내고 간을 맞춘 물로 익반죽을 하여 당콩알정도크기의 동그란 새알심을 만든다. 팥을 씻어서 솥에 안친 다음 물을 붓고 삶는다. 팥이 끓어올라오면 찬물을 조금 붓고 팥이 풀어질 때까지 세지 않은 불에서 계속 끓인다. 삶은 팥을 채로 잘 거른 다음 먼저 웃물을 따라 붓고 끓인다. 팥물이 끓으면 흰쌀을 넣고 계속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라할 때 팥앙금을 두고 주걱으로 솥바닥을 긁어 저어주면서 푹 끓인다. 다 되면 동그란 새알심을 넣고 10분정도 끓이다가 뜸을 들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　*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

- 개성남대문 -

우리의 취재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유물들이 집중되여있는 개성시로 향하였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 통일의 념원을 안고 개성시에 들어서는 우리를 제일먼저 맞은것은 시내의 중심에 서있는 개성남대문이였습니다.

개성남대문은 1391년-1393년에 세우고 1899년에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재능을 엿보며 우리는 남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화강석을 곱게 다듬어쌓은 장방형평면의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는 남대문은 척 보기에도 성문으로서의 모습이 잘 안겨왔습니다.

축대의 가운데에는 무지개문길이 있습니다. 무지개문길은 량쪽밑부분에 대돌을 놓고 그우에는 부채돌로 반원을 그리며 쌓아올렸습니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를 돌리고 거기에 총과 포를 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구멍을 내였습니다. 축대우 네 모서리에는 비물이 모여서 흘러내릴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축대우에는 정면 3간(13. 63m), 측면 2간(7. 96m)으로 세운 문루가 있습니다.

기둥은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어 세웠는데 밑의 돌기둥은 높이 1m이며 그 네모를 죽이였습니다. 그우의 나무기둥은 듬직하게 생긴 배부른 기둥입니다.

기둥우에는 액방과 평판방이 얹혀있습니다.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혀형제공에 첨차를 맞추어 안팎 3포로 짜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도리를 서까래까지 올리는 방법을 안쪽의 장여를 겹으로 놓고 그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는데 그 검소한 모습은 고려말기 두공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습니다.

문루의 널마루는 가운데 한간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정으로 하여 집안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지붕은 겹처마의 합각지붕으로서 룡마루, 박공마루, 추녀마루, 지붕면이 모두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었습니다. 날아갈듯이 가볍게 쳐든 추녀는 굳건히 서있는 몸체에 어울리게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나라 옛 건축물의 뛰여난 건축미를 그대로 자랑하고있습니다.

문루에는 모루단청을 입혔는데 문루의 성격에 어울리는 이 단청은 은근하면서도 무게가 있습니다. 문루에 유명한 연복사종이 있는것이 개성남대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대문과 만월대를 비롯한 개성의 고적들을 잘 보존하고 원상대로 복구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해 마사졌던 개성남대문이 주체43(1954)년에 원상대로 복구된데 대한 이곳 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취재지로 향하였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력사인물

홍두적의 침략을 물리친 리방실

리방실(?-1362년)은 고려시기 홍두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무관이다. 그는 함안현에서 태여났으며 젊어서부터 군대에 복무하여 중랑장, 호군의 무관벼슬을 력임하고 경효왕(공민왕)초기에 대장군으로 되였다.

1359년 12월초 홍두적이 쳐들어오자 그는 안우, 김득배 등과 함께 2만의 고려방어군을 지휘하여 1360년 1월 서경을 탈환하였으며 2월에는 함종전투에서 적 2만명을 멸살시켰다. 함종전투후 리방실은 고려의 정예기병 1 000명을 이끌고 도망치는 적들을 압록강까지 추격소멸하였다. 그는 그해 4월초 또다시 고려군을 거느리고 서해안의 여러 고을에 침입하여 략탈과 파괴를 일삼던 홍두적의 패잔병부대를 깨끗이 쓸어버리였다.

고려봉건정부는 홍두적의 제1차침입을 격퇴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리방실에게 공신칭호를 주고 그를 추밀원 부사로 임명하였으며 왕은 옥띠와 옥갓끈을 보내여 표창하였다. 공주가 그에게 귀중한 보물을 주는데 대하여 말하자 왕은 《우리 나라와 종묘가 페허로 되지 않고 백성이 무리죽음을 면하게 된것은 모두 리방실의 공》이라고 하면서 《내가 살을 베여주어도 오히려 그 공을 갚을수 없거늘 어찌 이따위 물건이 아까우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1361년 10월 홍두적이 20만의 대군으로 재차 침공해오자 서북면 도지휘사로 임명된 그는 절령(황해북도 자비령)에 목책을 세우고 서북면으로부터 개경에 이르는 중간지대의 방어를 맡았다. 그는 적들이 대규모의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형편에서 봉건정부에 제의하여 서경부근의 8개 고을의 인민들과 곡식을 절령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한편 그는 휘하의 고려군부대들을 서북면으로 파견하여 박주(박천), 태주(태천)의 적들을 격파하게 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한 부대를 이끌고 개주(개천)로 진격하여 수많은 적들을 무찌름으로써 홍두군의 침략시도에 큰 장애를 주었다. 그해 11월 그는 고려방어군을 지휘하여 절령으로 불의에 달려든 적기병의 공격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력량상관계로 개경부근의 홍의역까지 퇴각하였다. 그는 개경정부가 왕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하려고 하자 안우, 최영 등과 함께 수도를 끝까지 사수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후 리방실은 20만대군으로 편성된 고려군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 1362년 1월 중순에 진행된 개경탈환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워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였다.

*　*　*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온 겨레의 흠모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심혈을 바쳐가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련합뉴스》,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김일성**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온 겨레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주체101(2012)년 3월 그이께서는 어느 순간에 적아간의 불과 불이 오갈지 모를 초긴장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그날 판문점에 세워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함께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소식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뜨거운 격정으로 마냥 들끓게 하였으며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떠밀어주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고귀한 지침들을 뚜렷이 제시해주시여 온 겨레를 자주통일사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여 미국의 북침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날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한 미국과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북침핵전쟁책동에 더욱 로골적으로 매달리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앞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바로 이러한 정세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적대세력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실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가장 공명정대하며 실천적인 조국통일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조선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누가 평화의 파괴자인가

미국은 찍하면 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때문에 세계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처럼 떠들기를 좋아한다.

얼마전에도 공화국의 정의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들며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이라느니, 국제적인 행동규범에 대한 《무시》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공화국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추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해대는것과 같은 날강도적인 궤변이 아닐수 없다.

아마 그런 놀음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납작해진 저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어떻게 하나 공화국에 《위협의 가해자》, 《평화파괴자》라는 감투를 씌워 저들의 반공화국망동을 합리화해보려는것 같은데 그따위 수법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은 공화국의 핵시험을 걸고들 권리도 명분도 없다.

그것은 공화국을 핵탄두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민것이 바로 미국이고 오늘에 와서 그 위력판정을 위한 시험을 하게 만든것도 다름아닌 미국이기때문이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해왔다는것은 이미 공인된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공화국이 핵을 가지기 썩 이전부터 대조선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해놓고 수십년동안 매일과같이 핵위협공갈소동을 벌렸다.

지난 조선전쟁때에 벌써 핵무기사용을 시도하였으며 그후 평양, 원산, 청진, 신의주, 남포 등 주요도시들에 대한 가장 극악한 핵폭탄투하공격계획을 짜놓았다.

력대로 감행된 미국의 대조선핵위협공갈책동을 꼽자면 끝이 없다.

가까운 실례로 최근에만 놓고보자.

올해 미국의 무력증강과 핵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지난 9월 미국은 한달전에 괌도에 전진배치해놓았던 악명높은 《B-1B》핵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긴급출격시키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핵전략폭격기 《B-1B》로 말하면 미국이 해외침략전쟁때 핵선제타격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는 악명높은 핵전쟁살인장비이다.

미국은 이 핵전략폭격기만으로도 핵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허세를 부리고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핵동력잠수함 《미씨씨피》호, 전략핵잠수함 《오하이오》호들을 남조선의 부산항에 뻐젓이 입항시키고 뒤이어 《B-52H》전략폭격기편대와 핵전략폭격기 《B-2A》도 3대나 련이어 들이밀어 남조선상공에서 핵폭탄투하연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년초부터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기도를 로골화한데 이어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도 모자라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 대규모의 공중합동군사

《국민절망시대》가 펼쳐진 남조선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 싶다.》, 《국민을 목졸라 죽이려드는 〈정권〉을 박살내자.》

이것은 《국민행복》이니, 《창조경제》니 하며 비린청만 돋구고있는 현 집권자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의 폭발이다.

오늘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국민불행시대》, 《국민절망시대》를 몰아와 남조선을 사상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대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응당 선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신성한 권리이다.

그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가장 처참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 바로 남조선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있다. 그리하여 보수《정권》의 반역정책을 반대하는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이 정치적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강제해산, 강제페간되고 야당소속 《국회》의원이 백주에 《국회》청사에서 련행되고있으며 70고령의 통일인사들이 검거투옥되여 야만적인 사상전향을 강요당하고 평양방문소감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고향을 찾았던 해외동포녀성이 강제추방까지 당하였다.

있는 사실도 말하면 안되는 남조선사회이고보면 남조선괴뢰패당이 말끝마다 구정물처럼 토해내는 그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1%밖에 안되는 특권층, 부유층들이 99%에 달하는 근로민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강권과 전횡,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 현대판노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정에 의해 근로대중의 생활처지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날을 따라 치솟는 엄청난 치료비와 보육비, 등록금 등 각종 재정부담에 짓눌려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57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판자집, 움막 등에서 살고있으며 물가는 년평균 15%씩 뛰여올라 주민들의 생계를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1%가 모든것을 독차지하는 개같은 세상》이라고 한탄하고있다.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앞날에 대한 꿈도 희망도 모두 잃고 절망과 고통속에 신음하며 비참한 처지에서 몸부림치고있다.

괴뢰당국의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초, 중, 고등학교학생 한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 000원으로서 력대 최고액수를 기록하였으며 4년제 일반대학들에서 대학생 한명당 년간평균등록금은 667만원으로서 그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학비때문에 매해 퇴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학생수는 무려 7만명에 달하고있으며 대학생의 80%이상이 등록금마련을 위해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품팔이로동을 하고있으며 지어 의학생체실험대상으로 제몸을 바치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최근 남조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데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사상최악에 이르렀고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들의 수는 2014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으며 15살－29살 청년들가운데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근로자수는 2011년에 비해 20만명이나 더 늘어났다.

오늘 남조선에서 청년들이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아예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불리우고있기에 그에 대해 한 남조선언론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모습》이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이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떠들어대는 《국민행복》이니, 《창조경제》니 하는 희떠운 수작들은 결국 《국민절망시대》만을 가져왔다.

남조선이야말로 단떼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보다도 더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연습인 《맥스 썬더》훈련, 련합잠수함훈련, 《림팩》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그리고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은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될수록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올해 초 첫 수소탄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등 핵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였다.

이런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놓고 미국은 김빠진 소리로 어찌구저찌구하면서 《위협》나발을 불어대고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세계평화의 파괴자,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방패이며 보검이다.

하기에 로씨야의 따쓰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먄마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먄마》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 언론들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야화

쌀이 나오는 바위

금강산 령원골에는 《미출암》(쌀이 나오는 바위라는 뜻)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옛날 금강산에는 이곳에 들어와 처음으로 암자를 짓고 세상과 동떨어져 도를 닦은 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있고 산세도 험한 이 골안에는 몇해가 되도록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온 령원은 한번 먹은 마음 굽힘이 없이 솔잎을 씹으며 도를 닦기에만 전념하였다.

낟알구경을 한지도 까마득해졌다. 하여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앉아버틸 기력마저 없게 되였다.

어느날 그가 잠간 잠이 들었는데 백발을 한 로인이 나타나 《내 그대의 정상을 보아 쌀을 보내줄터이니 암자곁에 있는 바위밑에 가보아라.》라고 하는것이였다.

꿈에서 깨여난 그는 하도 이상하여 그 바위밑에 가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하얀 쌀이 소복이 쌓여있는것이 아닌가.

살펴보니 바위벽에 쌀 한알 겨우 빠져나올 작은 구멍이 있고 구멍에서는 동안을 두고 쌀이 한알씩 떨어지는것이였다.

그는 쌀을 옷자락에 고이 담아가지고와서 저녁을 끓이였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죽 한그릇을 맛있게 먹었다.

이튿날 시장기를 느낀 그는 쌀생각이 나서 다시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엊저녁과 같은 량의 흰쌀이 또 쌓여있었다.

이렇게 바위에서는 쌀이 더도 말고 하루 세끼 죽 한그릇씩 끓일 량만큼 나왔다.

그는 먹을 걱정이 없이 공부에 열성을 다해 마침내 도를 닦고 크게 성공하게 되였다.

그후 이 말이 퍼져 욕심많은 사람이 쌀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구멍을 크게 만들었더니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 * *

과거 일제의 원자탄개발책동의 진상 (1)

과거 일제가 극비밀리에 원자탄개발을 추진시켜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모든것들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고있었다. 하지만 최근시기 일제가 1930년대말부터 1945년 패망직전까지 진행한 원자무기개발에 대한 비밀계획들이 하나하나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비밀계획 《2호계획》과 《F호연구》

원자무기개발을 위한 일제의 비밀계획들중 대표적인것은 《2호계획》과 《F호연구》이다.

《2호계획》이란 당시 일본에 있던 리화학연구소의 니시나연구소 소장이였던 니시나 요시오의 이름 첫 글자 《니》가 수자 2의 일본어발음과 같은데 근거하여 지은것이다. 리화학연구소(략칭 《리연》)는 물리학, 화학 등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진행하는 자연과학계통의 종합연구소이며 그것은 일본륙군에 소속되여있었다. 한편 《F호연구》는 핵분렬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Fission의 머리글자를 딴것이고 교또제국대학의 아라가쯔 분사꾸연구실을 의미하며 일본해군주도하에 있었다.

1930년대초 일본에서의 핵연구는 학술적범위에서 산발적이였지만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부터는 군사적성격을 띠고 진행되였으며 1938년에 도이칠란드에서 우라니움의 핵분렬을 통하여 거대한 에네르기를 얻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였다. 물론 여기서 주역을 담당한것은 《2호계획》과 《F호연구》작성자들이였다.

《2호계획》의 작성자인 니시나 요시오는 이미 회전형공진가속장치 또는 원자핵파괴장치로서의 선회가속기인 일본최초의 싸이클로트론을 자기 연구소에 제작설치한데 이어 보다 새로운 대형싸이클로트론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는 미국의 어느 한 교수를 통하여 입수한 대형싸이클로트론의 총조립도면에 기초하여 그것을 제작하고 연구소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륙불화우라니움기체에서 우라니움 235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통제작에 착수하였다. 1943년 3월에 이미 열확산법에 의한 우라니움농축을 기본연구방향으로 정했던 니시나는 이를 위해 유능한 학자 100여명을 뽑아 연구조들을 각각 내오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44년 3월 열확산탑이 완성되여 농축시험이 시작되고 7월에는 대형싸이클로트론이 완성되여 실험에 들어가게 되였다.

한편 해군에서도 교또제국대학 아라가쯔 분사꾸교수를 중심으로 《F호연구》가 추진되였다. 아라가쯔 분사꾸는 1933년에 이미 직류전압용립자가속기로 원자핵의 인공변환실험에 성공한데 이어 1939년에 우라니움의 핵분렬에 의하여 생성되는 중성자의 수를 거의 정확히 얻어내였다. 그는 《2호계획》의 작성자와 마찬가지로 대형싸이클로트론을 자기 대학에 제작설치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밖의 《F호연구》와 관련한 자료는 알려진것이 없다. 그 리유는 1944년이후 《F호연구》가 새로운 비밀계획 《태양연구》로 발전하였기때문이다.

《태양연구》란 종전 《F호연구》의 복사판이며 그 발전이였다. 하기에 《태양연구》에는 《F호연구》를 주도했던 교또제국대학은 물론하고 오사까, 나고야, 도호꾸제국대학의 학자들도 망라되여 전국적범위에서 원자무기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감독도 륙해군이 공동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와 기간, 목표 등이 세분화되여 매 학자들에게 명백히 분담되여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 《태양연구》에 원자로에서 감속제로 쓰이는 중수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고있은것이다. 이것은 일제가 당시 농축우라니움뿐아니라 플루토니움에 대한 연구도 예견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제는 원자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여기서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분렬성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한데도 악을 쓰며 달라붙었다. 그들은 일본과 조선, 만주, 동남아시아지역들에서 우라니움자원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당시 동맹국이였던 나치스도이칠란드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2015년 7월 26일 일본의 《산께이신붕》, 《교또신붕》은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의 원자탄개발계획의 책임자였던 아라가쯔 분사꾸의 연구자료와 우라니움농축용원심분리기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등이 발견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신문들은 그전에 발견되였던 자료집에도 아라가쯔 분사꾸연구실에서 우라니움농축을 위한 원심분리장치개발에 달라붙었던것을 보여주는 원심분리기의 회전수를 계산한 수치와 필요한 자재, 참고로 리용한 외국의 론문이 기재되여있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강경수

1940년대 전반기 핵개발에 참가한 연구원들과 니시나 요시오

유 적

불일사5층탑

불일사5층탑은 개성시 선적리 보봉산 불일사에 세웠던 돌탑이다.

951년 고려때에 세운 불일사는 현재 터만 남아있고 돌탑은 고려박물관에 보존되여있다.

불일사5층탑은 높이가 7.94m(탑머리없이)로서 밑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다. 탑머리는 없어졌던것을 새로 만들어 올린것이다.

밑단은 아래우의 두단으로 되여있다.

탑몸은 5층이며 매층에는 고임과 몸돌, 지붕돌이 있다.

첫층 몸돌은 둘째층보다 높게 하고 그안에 유물을 넣었다. 매층 지붕돌밑면은 조금 불룩하게 만들고 세단씩의 처마받침을 두었으며 지붕면은 가벼운 곡선으로 비교적 급한 물매를 이루었다.

처마의 웃선과 밑선은 다같이 량쪽가녁으로 가면서 가볍게 들리였다.

이 탑을 옮길 때 첫단과 둘째단의 몸돌속에서는 20여개의 크고작은 공예탑들과 사리단지들, 불교의 경문, 천조박들이 나왔다. 탑에서 나온 유물들은 현재 고려박물관에 보존되여있다.

지난날 일제는 이 탑안의 유물들을 략탈하기 위하여 야만적으로 탑의 웃밑단을 폭파하였는데 그 만행의 자취가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다.

불일사5층탑은 고려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　*　*

홰불대오에 비낀 조선의 의지　　장성복

백전백승, 백두산대국… 불의 대하가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해놓으신 승리의 전통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어이 이어갈 천만군민의 의지가 하늘땅에 차넘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682156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